

블랙핑크 뮤비 장면 논란 ... 삭제



▲ 간호사 성적 대상화 논란이 제기된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 장면. 사진=유튜브(BLACKPINK) 영상 캡처

지난 2일 공개된 그룹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가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결국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

소속사 YG는 7일 "블랙핑크의 '러브식 걸즈' 뮤직비디오 중 간호사 유니폼이 나오는 장면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영상을 교체할 예정"이라며 "조금도 특정 의도가 없었기에 오랜 시간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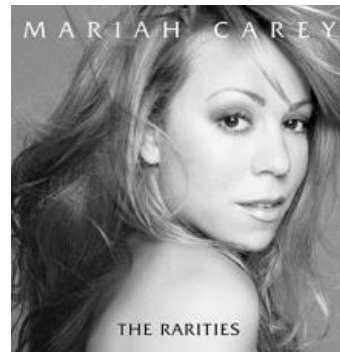
앞서 지난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YG엔터 블랙핑크 뮤비 속 간호사 성적 대상화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간호사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헤어캡,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 하이힐 등 현재 간호사의 복장과는 동떨어졌으나 '코스튬'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성적 코드를 그대로 답습한 복장과 연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YG는 6일 "뮤직비디오도 하나의 독립 예술 장르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장면들은 음악을 표현한 것 이상 어떤 의도도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에서 갑론을박은 이어지자 결국 약 6초 분량의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

'러브식 걸즈'는 블랙핑크가 지난 2일 발매한 첫 정규 앨범 '디 앨범'의 타이틀곡이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공개 3일 만에 1억뷰를 넘어섰다. 음반은 오프라인 발매 첫날인 6일 단 하루치 집계만으로 약 59만 장을 판매하며 K팝 걸그룹 역대 초동(앨범 발매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계) 판매량 최다 신기록을 세웠다.

머라이어 캐리,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발매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더 레리티즈(The Rarities)'를 선보였다.



▲ 머라이어 캐리의 30주년 기념 앨범 커버. 사진=페이스북(머라이어 캐리)

6일 소니뮤직에 따르면 이 앨범은 이전에 공개된 적 없던 미공개 트랙들로 구성됐다. 캐리가 직접 선곡한 그녀의 베스트 트랙 15곡과 자신의 첫 일본 공연이었던 1996년 도쿄 돐 공연 실황을 담은 라이브 음원 17곡이 수록됐다.

그중 '세이프 더 데이(Save The Day)'는 지난 몇 년간 미완성 곡으로 남겨졌던 곡으로, 캐리가 이번 앨범을 위해 완성한 신곡이다. 미국 힙합그룹 '푸지스'의 '킬링 미 소프트리 위드 히스 송(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을 샘플링했다. 오리지널 트랙의 로린 힐 보컬이 사용됐다.

아일랜드계 미국인 어머니, 흑인과 베네수엘라인 혼혈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캐리는 1990년,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걸쳐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모두 낸 첫 번째 가수다. '핫100' 1위에 솔로 가수 중에서 최다인 19곡을 올린 탑가수다.

지난 30년간 자신의 삶을 담은 회고록 '머라이어 캐리의 의미'(The Meaning of Mariah Carey)를 지난달 29일 출간하기도 했다.

소피아 베르가라,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여배우

세계에서 지난 1년간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여배우는 드라마 '모던 패밀리'에 출연한 소피아 베르가라(Sofia Vergara)였다.



▲ 소피아 베르가라 (Sofia Vergara). 사진=인스타그램 (소피아 베르가라)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최근 베르가라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4,3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여배우 수입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베르가라는 지난해 여배우 수입 2위였다.

베르가라가 1위를 차지한 데는 올해 초 끝난 에미상 수상작 드라마 '모던 패밀리'의 마지막 시즌11과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가라는 모던 패밀리에서 회당 50만 달러의 출

연료를 받았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각 시즌에서 최소 1,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드라마 모던 패밀리는 미국 ABC에서 11년간 인기리에 방영된 시트콤이다. 올해 4월을 끝으로 시즌11의 막을 내렸다. 베르가라는 모던 패밀리에서 '글로리아'역으로 인기를 얻었다.

한편 여배우 수입 2위는 앤젤리나 졸리(3,500만 달러), 3위는 켈리 클락슨(3,100만 달러)이 차지했다. 포브스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배우가 영화보다 TV, 스트리밍 서비스로 돈을 벌었다고 분석했다.

날말퍼즐 정답									
	1 태	양	2 초		3 보	건	4 소		
5 분	교		6 입	7 장	료		설		
리				애					
8 수	소	9 문		10 물	11 감		12 무		
거		13 안	14 건		15 행	선	지		
			어				몽		
16 치		17 조	물	18 주		19 구	매		
20 한	나	절		21 장	탄	식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숨은그림찾기 정답